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소고*

박선영**

요약

이 연구는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청소년정책을 분석하였다. 유럽평의회의 청소년정책이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과 주제와 내용면에서 비슷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유럽연합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평의회의 청소년정책은 유럽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서 시작하여, 청소년정책에의 청소년의견 수렴, 관련 장관회의를 통한 회원국 내 청소년정책의 공유 및 청소년양육에의 책임 인식과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같은 한국의 청소년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다양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청소년정책의 인식 확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청소년, 청소년정책, 유럽평의회

* 이 논문은 2013년도 동서대학교 교내 특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동서대학교, rophes@hanmail.net

I.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도하에 다양한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청소년정책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다(김경준 외, 2012; 오해섭, 2005; 윤철경, 2004; 윤철경 외, 2010, 2011, 2012). 그러나 유럽연합에 비해 학교교육정책(formal education)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정책을 훨씬 오래전부터 수립하여 정책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청소년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물론 유럽평의회의 회원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은 중복되는 경향이 있긴 하나,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 차원의 청소년정책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이 아닌 유럽평의회 차원의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의 청소년정책 발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백서의 발간을 통해 유럽연합이 유럽연합의 미래가 청소년에게 달려있다고 천명할 정도로 청소년교육과 복지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서 유럽평의회는 학교교육이 아닌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와 지원을 이미 1980년대 이후 강조하고 있다(Denstad, 2009). 유럽 청소년들에게 학교밖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철학적 논의는 유럽평의회의 다양한 사회정책에서 골고루 나타나는 주제이다. 다시 말해 유럽평의회가 제시하는 모든 사회정책의 비전과 위기탈출을 위한 다양한 전

약들의 최우선 순위에 항상 청소년이 놓여있는데 이는 청소년을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청소년의 정확한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여러 가지 청소년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어 실질적인 청소년의 참여의 장도 보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개진하고 논의하는데 필요한 민주적 의사소통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실제적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럽평의회차원의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실시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유럽의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 분석과 특징, 도전과 과제 등을 분석하고, 둘째, 유럽평의회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해 고찰 한 후, 마지막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

1. 유럽의 청소년과 사회 환경의 변화

근대이후 유럽의 사회변화는 한국의 사회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급속한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의 지리적 국경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있고, 다양한 교류와 이주의 증가로 지구촌이 하나의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적 성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

이다.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인구수는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15.3%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청소년인구가 19% ~ 20%에 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속한 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심각한 고령화 사회를 예상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세대 간 갈등을 악화시키고 경제성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Garratt & Forrester, 2012). 더욱이 세계화의 속도는 점점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청소년은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는 미래세대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역기능적 가족의 증가는 청소년에게 내적으로도 완전한 발달을 이루기에 필요한 지원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1).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미래사회를 살아가게 될 청소년은 자신의 부모세대에게 요구되었던 과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전술한 사회와 가정의 변화는 예측불가능하고 통제가 어려워 다양한 대비가 필요한 반면, 학교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과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학교의 기능이 더 이상 학교 밖 사회 환경의 변화와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학교에

게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European Commission, 2011). 그렇다면, 학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당국은 학교 외의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가진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국가와 유럽연합 차원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제공되어야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미리 감지한 것이 유럽평의회이며, 그 결과 청소년정책을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게 된 것이다.

현재 유럽의 청소년은 그 어느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테크놀로지 이용에 뛰어나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이며 이동성에 있어서도 어디로든 갈 수 있을 만큼의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며, 경쟁사회 속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하다(European Commission, 2012). 유럽연합의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며, 장기적인 유럽의 경제침체로 고용불안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회에서의 낙오자가 되는 것, 혹은 배제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심도 있다. 또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염려도 있어, 청소년이 이 처한 위기는 교육, 고용, 사회통합, 보건의 문제로 드러나기도 했다(European Commission, 2011). 유럽평의회의 청소년정책은 이상의 열거된 위기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 자원봉사, 국제교류활동에의 참가에 의한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다(Council of Europe, 2013).

2.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의 청소년정책

1) 유럽평의회의 역사와 청소년정책의 발전

유럽평의회에는 현재 47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28개

의 국가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1949년에 브뤼셀 조약 기구(현재의 서유럽 연합)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발족되었으며 현재 유럽평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를 유럽평의회가 유럽대륙의 가장 핵심적인 인권기구라고 밝히고 있다. 모든 회원국은 유럽인권헌장에 동의하여야 하고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수호, 법질서의 존중이 유럽평의회가 추구하는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Council of Europe, 2013). 유럽평의회 운영의 주요 목적은 유럽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을 도모하고, 회원국들간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하며, 유럽평의회 공동의 이상과 원칙을 준수하고, 유럽의 전진적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이나 군사문제는 다루지 않으며, 유럽연합이 정치적, 경제적 통합과 협력을 주로 하는 반면, 유럽평의회는 사회통합과 공동의 발전을 더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점이 유럽연합과 구별되는 큰 특징으로 출발하였다(Denstad, 2009). 그러나 유럽연합 역시 2000년대 이후, 경제, 정치 통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이 모두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평의회는 청소년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유럽연합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수립하기 훨씬 이전부터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는 초국가적 조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특히 유럽평의회가 청소년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1960년대부터 세계대전 이후 인권존중과 민주주의의 존중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청소년을 지목했기 때문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2).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은 1985년 청소년장관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으

며 이를 통해 각국의 청소년의 문제를 공유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를 마련하게 되었다(Council of Europe, 2013). 유럽평의회는 청소년과 청소년 참여에 대하여 아젠다를 개발한 첫 번째의 국제기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유럽연합에 비해 거의 30여 년 전에 청소년정책과 담당기구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Denstad, 2009).

청소년장관회의 이전에 이미 1972년 유럽평의회 산하에 European Youth Centre, 즉 유럽 청소년센터를 설립하면서 청소년정책 개발과 청소년 및 시민단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2). 이를 위해 같은 해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들에게 초국가적 청소년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영역을 개발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목적으로 청소년재단(Youth Foundation)을 설립하기도 하였다(Council of Europe, 2013). 유럽평의회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냉전시기에는 특정지역 청소년의 문제와 인권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가 1989년 이후에는 전 유럽 내 청소년들의 간문화간 교류와 이해로, 2001년 9.11 사태 이후에는 반이슬람 정서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점차 변화되어 오기도 하였다(Council of Europe, 2003).

유럽 내의 장기적인 청소년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에는 2008년 제8회 유럽평의회 회원국 내 청소년부 장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하여 유럽의 청소년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의 이름은 ‘The Future of the Council of Europe Youth Policy: Agenda 2020’으로 유럽평의회의 미래 청소년정책이다. 이 정책은 인권과 민주주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함께 살기, 청소년 사회포섭의 3분야로 나뉘어 분야별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Denstad,

2009). 청소년이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유럽평의회¹⁾의 또 다른 특징은 유럽평의회 설립 초기부터 청소년 정책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해왔고 유럽 전역의 청소년단체(Youth Organisation)와 기관의 청소년지도사¹⁾(Youth Worker)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주관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유럽평의회 미래 청소년정책에 학교교육 외에 학교 밖 Nonformal Education 분야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Council of Europe, 2013). 유럽평의회가 청소년의 학교 밖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여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의 공교육 위주의 청소년정책과는 매우 대조가 되는 부분이다.

2) 유럽평의회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기구

유럽평의회는 청소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의사결정기구는 European Steering Committee for Youth(이하 CDEJ)로서 49개국에서 모인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각국의 청소년의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해결할

1) 한국에서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지도자에 해당이 되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 7항은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국 청소년의 필요가 유럽평의회 청소년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기구이다. CDEJ는 회원국내 청소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의사결정기구인 Advisory Council on Youth로서 유럽 내 30개의 비정부 청소년단체들의 대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 조직은 유럽평의회 내 청소년정책과 분야에 다양한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다(Council of Europe, 2003).

CDEJ와 Advisory Council on Youth은 유럽평의회의 청소년 예산과 유럽청소년재단(European Youth Foundation)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에 관련한 업무 외에도 이 두 기구는 각각 8명의 대표를 통해 유럽청소년센터(European Youth Centre)와 유럽청소년재단의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일도 하여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고 감시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2).

3) 청소년장관회의

청소년장관회의는 1985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 개최지를 달리하며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유럽평의회 차원의 청소년정책 방향이 결정되며 회의 마지막에 채택되는 최종 선언문은 국경을 초월한 청소년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공동의 청소년정책을 개발하는 근거가 된다(Denstad, 2009). 청소년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정책과 비전들은 각국의 청소년정책 개발의 지침이 될 만큼 유럽평의회 청소년장관회의는 청소년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장관회의를 통하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동의 청소년정책 목표와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년장관회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청소년참여 현장

유럽평의회는 1992년 개별 국가와 유럽지역에서의 청소년참여의 시금석이 된 청소년참여현장을 채택하였다. 2003년 개정된 이후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과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점에서 유럽평의회가 유럽연합보다 청소년 인권에 있어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박정원, 2010).

청소년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평의회는 청소년참여 현장을 통하여 청소년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 현장은 전술한 두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기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가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Council of Europe, 2003). 한국에서도 청소년정책의 수립을 논의할 때 청소년참여가 중요하게 거론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청소년의 참여는 물론 청소년현장의 참여가 부족한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과 청소년기관의 참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5) 유럽평의회 청소년정책 평가와 기준

1997년 유럽평의회는 회원국의 개별 국가 청소년정책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각국의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회원국 내 청소년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개별국가들의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회원국내 청소년정책의 수준과 실재를 비슷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이 유럽의 어느 국가에 거주하든지 비슷한 혜택과 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Council of Europe, 2003). 이 평가단에 의해 유럽평의회 Youth Report가 발간되며 국가마다 상이한 청소년정책을 통일하고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다(Williamson, 2002). 정책 평가를 통하여 'European Standard', 유럽기준을 제시하며 이것은 유럽평의회 차원에서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Council of Europe, 2003). 청소년정책을 단지 평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는 다양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Denstad, 2009).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청소년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과 주요 청소년정책 이슈는 표와 같다.

표에서 보다시피 청소년정책의 영역과 의제는 한국에 비해 매우 다양하며 다문화주의의 확산과 교류의 증가로 인한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11 사태 이후로 생겨나기 시작한 반이슬람 정서와 급진사상, 분열주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것을 제안하고 있다(Council of Europe, 2013). 청소년정책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그 주변 환경,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 청소년정책 영역과 주요 이슈

청소년정책 영역	청소년정책의 주요 이슈
• 교육(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 청소년활동) •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과 훈련 • 청소년고용과 노동시장 • 보건 • 주택 • 사회보장과 수입지원 • 복지와 가족 • 사법제도 • 레저 활동(스포츠와 예술) • 국방과 병역 • 가치와 종교	• 참여의 기회와 시민성 • 안전과 보호 • 사회적 배제 예방과 사회통합 • 정보의 제공과 사용 • 기동성과 국가 간 이동 • 다문화주의 • 평등 • 급진사상과 분열주의 vs 통합 • 지역 vs 세계 • 중심 vs 주변 • 도시화 vs 지방 양극화 • 엘리트 vs 방관자 • 환경문제 • 이민자의 역할

<출처: Chisholm, L., Kovacheva, S., & Merico, M.(2011: 123). European Youth Studies: Integrating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M.A. EYS Consortium-Innsbruck.>

III. 시사점

유럽연합과는 별도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가 청소년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인식

유럽연합이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후반인데 반해, 유럽평의회는 세계대전이후 지속적으로 청소년정책이 학교교육 이상으로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청소년정책이 1991년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5년마다 국가가 수립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교육에 밀려,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청소년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교사나 학교도 많다. 유럽평의회는 학교교육과 구별되는 청소년정책이 학교가 채워줄 수 없는 다양한 청소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급변하는 세계에 민첩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의 장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정책을 강조해오고 있다.

또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물론 한국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고, 현장에서 제시된 청소년의 의견이 중앙정부가 계획하는 청소년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학교교육만으로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를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활동에의 참가를 통해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참여는 국제 시민교육 비교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민주주의 사회와 시민사회의 기본이 되므로(Kerr, Sturman, Schulz, & Burge, 2010), 청소년정책에 이러한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금보다도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유럽평의회의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청소년지도사들이 교류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교사의 역할 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가 청소년활동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가 사회복지사보다 더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평가조차 받고 있지 못한 것에 비하면 유럽평의회의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정책과 프로그램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우선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처우개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정책 영역의 다양화

전술한 유럽평의회의 청소년정책 영역과 주요 이슈는 한국 청소년정책 수립에 고려해야할 만한 주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교밖 청소년활동을 교육의 영역으로 간주했다는 것이고, 청소년의 고용과 노동시장에 대해 적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건과 주택(주거)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이 성인으로서의 독자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제도라는 복지영역의 이슈를 청소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기개발의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치와 종교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

루고 있다. 이러한 큰 청소년정책 영역 안에 주요한 이슈로서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성 함양, 청소년을 사회적 배제에서 탈피시켜 사회 통합에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식, 다문화역량 함양, 환경문제에의 관심 유도 같은 성인정책에서나 다를 법한 세부 정책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청소년정책도 점점 심화되는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적극적인 다문화역량 함양 방안과, 청소년을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기에 필요한 시민적 지위의 인정, 자신이 속한 다양한 종류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감 습득과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8)은 이미 이상의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당면한 청소년문제들의 해결에 머물러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 그러므로 실천가능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청소년정책(sustainable youth policy)을 위한 학교, 청소년활동현장의 협력적인 공조와 연대가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 김경준 외(201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Ⅲ: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R10-1.
- 박정원(2010).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와의 관계: 유럽 인권보호의 맥락에서. **한양법학 31**, 233-255.
- 여성가족부(2012).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오해섭(2005). **국제청소년교류활동 평가체계 및 모형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5-R06.

- 윤철경(2004).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방안**.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04-R03.
- 윤철경 외(2010).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0-R09
- 윤철경 외(2011).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R12.
- 윤철경 외(201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12-R06.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2). **유럽평의회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Chisholm, L., Kovacheva, S., & Merico, M.(2011: 123). European Youth Studies: Integrating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M.A. EYS Consortium- Innsbruck.
- Council of Europe(2003). Council of Europe Experts on Youth Policy Indicators, Final Repor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Denstad, F. Y.(2009). Youth Policy in Europe. In: F.Y. Denstad, Youth Policy Manual: How to develop a national youth strategy. 21-40.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European Commission(2009).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12) EU Youth Report: Status of the situation of young people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 Garratt, D. & Forrester, G, (2012). Education Policy Unravelling. London: Continuum.
- Kerr, D., Sturman, L., Schulz, W., & Burge, B.(2010). ICCS 2009 European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secondary students in 24 European countries. Amsterdam: IEA.
- Council of Europe(2013): The Council of Europe in brief. <http://www.coe.int/aboutCoe/index.asp?page=quisommesnous&language=en>
- Council of Europe(2013): Youth Portal. <http://www.coe.int/t/dg4/youth/>
- European Commission(2011). Youth in Action Programmes Guide www.ec.europa.eu/youth

Abstract

Youth policies in The Council of Europe

Park Sun Young
(Dongseo University)

This study analysed the youth policy from the Council of Europe which is a quite new idea in Korea. There are similarities among youth policies between European Union and the Council of Europe, however, youth policy in the Council of Europe regarding youth work has longer history than European Union. Youth Policies in the Council of Europe reflects the rapid social changes and also has evaluation systems to develop the policies and promote the practices. Implications from the Council of Europe are suggested. Firstly, youth policies are developed through youth voices and participations for promoting youth rights. Secondly, members of the Council of Europe share the youth policy and develop together. Finally, the Council acknowledges big importance of youth work and youth workers through supporting them. Therefore, this study raised the issue of youth work and youth policy for equipping youth key competences.

Key words : Young people, Youth policy, the Council of Europe

투고신청일 : 2013. 10. 30

심사수정일 : 2013. 12. 19

게재확정일 : 2013. 12. 26